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서한 묵상집

(2021년 8월 21일 ~ 9월 25일)



천주교인천교구
DIOCESE OF INCHEON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시편 42,2)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희년

서한 묵상집

발행일 2021년 8월 13일
발행처 천주교 인천교구 복음화 사목국
편 집 이 마리 보나벤투라 수녀
주 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전 화 032) 765 · 6962
팩 스 032) 765 · 6933
이메일 samok@caincheon.or.kr
인 쇄 현대디자인공간
출 처 이 빈들에 당신의 영광이 - 정진석 옮김 · 바오로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회년 기도

거룩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순교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시고
특별히 김대건 안드레아를 부르시어
머나먼 타국에서 사제로 축성하시고
마침내 순교의 영광을 주셨으니 감사하나이다.

진리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를 굳게 믿으며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순교의 삶을 본받아
저희가 어떠한 현세적인 어려움과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주님을 증언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희망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가 고대하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며
세상의 유혹을 거슬러 용기를 내고 자비의 삶을 살아
저희가 다른 이들과 화해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도와주며
회년의 기쁨을 살게 하소서.

사랑의 근원이신 하느님,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이 땅의 첫 사제로 불러 주셨듯이
훌륭한 사제와 수도자가 많이 나게 하시어
이 땅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게 하시고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일꾼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목 차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시편 42,2)

1부 고향을 향한 그리움 (1~3주간)

1주간 (8월 22일~ 8월 28일) ----- 6 ~ 11

고향을 향한 그리움: 조선을 향한 여정의 시작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사하게 지켜주시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

2주간 (8월 29일~ 9월 4일) ----- 12 ~ 17

같은 그리움을 지닌 이들의 도움: 진흙 길에서 만난 손길

"두 요셉이라고 하는 교우촌 회장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다섯 번째 편지)

3주간 (9월 5일~ 9월 11일) ----- 18 ~ 23

조선의 신자들을 향한 그리움: 복음의 씨앗을 품어 조선으로

"조선에 있는 신자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으나 목자들이 아니 계셔서 암흑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편지)

2부 하느님 나라를 향한 그리움 (4~5주간)

4주간 (9월 12일~ 9월 18일) ----- 24 ~ 29

오직 하느님의 도우심만을 빌며: 박해 속에서도 자라난 하느님께 대한 그리움

"우리는 인간의 구원을 바랄 수 없어 오로지 하느님의 도우심만 믿고 있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편지)

5주간 (9월 19일~ 9월 25일) ----- 29 ~ 34

하느님 나라를 향한 그리움: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는 자유

"머지않아 천당에서, 영원하신 성부 대전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편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생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1821년 8월 21일 충청도 솔피에서 김제준 이나시오와 고 우슬라의 장남으로 태어나셨으며, 당시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피하여 일곱 살 되던 해에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 ‘골배마실’이라는 산골로 이사 한 뒤, 그곳에서 성장합니다.

소년 김대건은 1836년, 열다섯 어린 나이에 경기도 용인 은이 공소에서 프랑스인 모방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신학생으로 선발되어 중국 최남단에 있는 마카오로 유학길에 오릅니다. 10년 후, 1845년(24세) 8월 17일 중국 상해(上海) 김가향(金家巷) 성당에서 조선교구 제3대 교구장 페레올 주교님에게 사제품을 받습니다.

1845년 8월, 10년 만에 어렵게 귀국한 김대건 신부님은 서울에서 선교 활동에 힘쓰는 한편, 외국 선교사들을 영입하려고 바닷길을 개척하다가 1846년 6월 5일 백령도 해역 순위도에서 체포되어 국경을 허가받지 않고 넘나든 것과 천주교를 몰래 전파한 죄로 9월 16일 서울 한강변 새남터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때 신부님의 나이는 고작 만 25세였습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25년의 짧은 생애에도, 한국인 최초의 천주교 사제로서 현실을 직시하고 진리를 외치던 선각자였습니다.

이번 회년의 주제는 김대건 신부님께서 옥중 취조 때 받으셨던 질문인 동시에, 이 시대가 우리 신앙인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오.” 죽음의 두려움을 과감히 떨쳐 버리신 성 김대건 신부님의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은, 하느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이며 그분에 대한 신앙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한다는 확신을 심어 줍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1846년 8월 말 옥중에서 조선 신자들에게 쓰신 스물한 번째 편지인 마지막 회유문에서 발췌한 내용을 들어봅시다.

교우들 보아라.
우리 벗아, 생각하고 생각할지어다.

천주 무시지시(無始之時)로부터
천지 만물을 배설(配設)하시고,
그중에 우리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위자(慰藉)와
그 뜻을 생각할지어다.

온갖 세상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다.
이 같은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 번 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난 보람이 없고,
살아도 쓸데가 없다.

비록 주은(主恩)으로 세상에 나고
주은으로 영세 입교하여 주의 제자 되니
그 이름이 또한 귀하거니와
실천이 없으면 이름을 무엇에 쓰며,
세상에 태어나 입교한 효험(效驗)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배주배은(背主背恩)하니
주의 은혜만 입고
주께 득죄(得罪)하면
아니 남만 못 하리.....

할 말이 무궁한들
어찌 지필(紙筆)로 다하리.
그친다.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1주간

고향을 향한 그리움: 조선을 향한 여정의 시작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사하게 지켜주시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두 번째 편지)

1842년 2월 28일 마닐라에서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학생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사하게 지켜주시리라라는 희망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존경하올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조선으로 출발하게 되니 이 기회에 잠시 틈을 내어 신부님께 짝막한 편지를 올립니다. 신부님과 헤어진 지도 벌써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2월 16일쯤 리브와 대표 신부님께서 메스트르 신부님이 저를 데리고 조선으로 가도록 배정하셨습니다. 이 여행이 비록 험난할 줄 압니다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사하게 지켜주시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 군함을 타고 갑니다. 그 군함은 프랑스의 루이 필리프 왕이 중국에 파견한 사절 장시니 씨를 마카오에 태워다 준 군함입니다. 우리는 마카오를 떠난 후 하느님의 보호로 순조롭게 항해하여 마닐라에 입항하였고, 여기서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장만해서 2월 말쯤 출발할 예정입니다. 신부님, 내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이곳 신부님들과 우리도 모두 건강히 잘 있습니다. 최양업 토마스는 지금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글을 마치면서 스승님께 기도 중에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청하며, 저도 신부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하올 스승님께, 부당한 아들 김해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첫 번째 편지 마닐라에서, 1842년 2월 28일

1842년 9월 상해에서 마카오의 리브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학생의 세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조선 입국을 위한 간절한 기다림입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우리가 아직 주산에 있을 때 신부님께 짧은 편지를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짧은 편지를 드립니다.

마침내 우리는 주산에서 돛을 펴고 출범하여 영국 함선 스무 척과 함께 양자강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출발할 날을 기다리며 머물고 있습니다. 세실 함장의 약속대로 우리는 에리곤호로 조선에 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하여 조선으로 갈 가망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실 함장은 마닐라로 출범하였고, 우리는 지금 여행 보따리를 가지고 양자강 기슭의 어떤 외교인 집에 머물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모두 잃고 외교인 황세흥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조선으로 향해 갈 길을 달리 모색하며 출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님도 아시겠지만 영국군은 여기서 강 오른편 연안에 있는 몇몇 도시와 상해를 함락시키고 남경(南京)으로 진격하였습니다..... 영국군이 남경에 도착하여 그 도시 북쪽에 있는 산에 군대들을 상륙시키고 그 도시를 점령하고자 하였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이 광경을 보고 벌벌 떨면서 영국군에게 강화를 요청하러 사자를 보냈습니다. 영국군은 이런 사실을 알고 그들의 제의를 받아들여 강화 조약(난징 조약)을 맺고 8월 29일에 조인하였습니다..... 강화 조약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은 영국에게 배상금 2천 1백만 원을 지불할 것, 중국의 항구 여섯 곳을 개항할 것, 영국은 북경 황제에게 대사를 파견할 것..... 이 도시의 중국 고관은 영국군이 승리한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녀들을 모아놓고 집에 불을 질러 모두 함께 타 죽었다고 합니다.

메스트르 신부님도 편지하실 테니까 저는 많이 쓰지 않겠습니다. 스승님께 기도 중에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청하고, 아울러 내내 안녕하기를 빕니다.

공경하올 스승님께, 무익한 아들 김해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세 번째 편지 상해에서, 1842년 9월

1842년 12월 9일 요동(백가점)에서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학생의 네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하느님의 자비하신 안배입니다.

우리는 출발할 날을 고대하며 오송구에서 썩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실 함장이 남경 시내를 구경하고자 해서 중국 배 한 척을 임대하였는데, 에리곤호는 강을 거슬러 오르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서 세 명의 장교와 선원들을 데리고 출발했는데 저는 통역관으로 따라갔으며 메스트르 신부님은 에리곤호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습니다.

출발한 지 약 6일 만에 진강부에 도착하여 하루 동안 시가지를 걸어 다니면서 구경하였는데, 전쟁으로 파괴되고 강도들의 약탈로 폐허가 된 시가지는 사방에서 악취가 났습니다..... 관광을 마치고 오송구로 돌아오는 도중에 우리가 고대하던 파보리트호(프랑스군함)를 만났습니다. 그 배에서 브뤼니에르 신부님과 그의 두 동행인 최양업 토마스와 범 요한이 도착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과 괴로움을 한꺼번에 느꼈습니다. 우리가 모두 모였으니 즐겁기는 하나 사정이 더욱 곤란한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또한 서글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에리곤호에 도착해 보니 신부님들이 범 요한으로 하여금 브뤼니에르 신부님을 안내도 하고, 베를 주교님에게 보내는 짐을 처리하도록 상해의 신자들한테 심부름을 보냈는데 그가 돌아오지를 않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세실 함장이 조금 뒤 출범하겠다고 똑똑히 말하였지만 온종일 범 요한을 기다렸지만 허사였고 속히 돌아올 것 같지도 않았습다.

그래서 신부님들은 부득이 브뤼니에르 신부님과 토마스가 여행 보따리를 맡아가지고 육지에 내려서 범 요한을 기다리게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자비하신 안배로 다행히 오래전부터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였던 황세흥이라는 해변에 거주하는 외교인이 에리곤호 출항 전날 저녁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하여 브뤼니에르 신부님과 토마스는 그의 동의를 얻어 여행 보따리를 가지고 그의 집에 가 있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편지 요동(백가점)에서, 1842년 12월 9일

1842년 12월 9일 요동(백가점)에서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학생의 네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조선 입국을 앞두고 하느님께 대한 의탁입니다.

메스트르 신부님과 저는 예정대로 에리곤호로 우리의 선교지 조선에 들어가기에 희망하였으나 세실 함장은 함선 안에 환자가 많고 여행 예정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조선으로 가는 항해를 망설였습니다. 메스트르 신부님의 질문에, 조선을 향하여 항해하기는 하겠으나 만일 항해 중에 어디서든지 역풍을 만나면 곧바로 마닐라로 뱃머리를 돌릴 것이라고 조건부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딱한 형편에 메스트르 신부님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우리가 마닐라로 다시 돌아가게 될까 봐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세실 함장이 돛을 펴서 출범하려 할 때 마침 범 요한이 돌아와, 당시 상해 근처에 체류하던 산둥 지방의 강남 직할 서리구장이신 존경하을 베지 주교님께서 짐 보따리에 대해 조치하신 경위를 신부님께 보고하였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신부님은 더 안전한 편을 취하기로 하고 저와 함께 황세흥씨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브뤼니에르 신부님은 범 요한과 토마스를 데리고 그 근처에 정박해 있던 영국 군함을 타고 의복을 변장하여 베지 주교님께로 급히 갔습니다.

우리는 그 외교인 집에서 5일 동안 묵은 다음 같은 군함에 올라가서 숙박을 청하니 그들은 우리를 매우 환대하였습니다. 하루를 지낸 후 우리는 주교님으로부터도 환대를 받았고 주교님의 알선으로 어떤 신자의 배를 타고 약 15일 걸려 우리가 향하던 태장하(太莊河)에 입항하였습니다. 이 항해 중 역풍으로 두세 번 출범하였던 곳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외에 별다른 역경은 없었습니다.

네 번째 편지 요동(백가점)에서, 1842년 12월 9일

1842년 12월 9일 요동(백가점)에서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학생의 네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유숙(留宿)할 곳 없는 가련한 처지에 놓인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신부님들은 밤에 군함에서 내려 상륙하기로 작정하셨으나 주위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낮에 교우촌 회장을 따라 상륙하였고, 짐 보따리는 다른 배로 보냈습니다..... 우

리가 세관에 가까이 갔을 때 안내자는 여러 가지 귀찮은 질문을 피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강변에 내려 검문 장소를 슬그머니 지나가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곳은 물이 빠진 지 얼마 안 되어 대단히 질퍽거렸는데 세관에서 뵈히 보였습니다..... 외교인들은 우리가 질퍽하고 길도 없는 강변에서 허둥거리는 것을 보고 한편에서는 신부님들을 영국인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한편에서는 장정 스무 명가량이 고향을 치며 우리한테로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손님 안내자였는데 우리는 그들을 경찰관인 줄로 여겨 겁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붙잡으며 여러 가지로 힐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부님들은 아무 대꾸도 없이 곧장 걸어갔습니다. 저는 우리가 소매 속에 감추고 있던 책 때문에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여전히 붙잡고 힐문하였으므로 제가 화난 목소리로 ‘당신네는 안녕질서를 위하여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관이면서 무고한 인민을 모욕적으로 대하느냐’고 꾸짖었더니 그들은 우리를 내버려 두고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수레를 타고 요셉의 집에 다다랐으나 두씨 가족 외에 다른 신자들은 모두 신부님들을 맞이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베를 주교님이 그들 집에 유숙하는 것도 그들은 원하지 않았으니만큼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편지 요동(백가점)에서, 1842년 12월 9일

2021년 8월 27일(금) 성녀 모니카 기념일

1842년 12월 9일 요동(백가점)에서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학생의 네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명입니다.

조선에 대한 확실한 소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베를 주교님한테서 변문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연락원은 외교인 상인들한테서 탐문하여 알아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연락원이 조선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고 합니다.

“2명의 외국인이 3백 명의 조선인과 함께 잡혀 다 같이 사형을 받았고, 왕의 통역관 유 아우구스티노(劉進吉)는 이 불행한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참수된 후 그의 시체는 여섯 갈래로 찢겨 새들의 밥이 되었으며, 그의 온 가족이 멸족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째서 그 외국인들과 조선인들이 학살되었느냐고 연락원이 다시 물으니까 그 외국인들은 3개 국어, 즉 조선말, 중국말, 서양말과 글에 정통한 자들로서 나쁜 종교로 조선 사람들을 부패시켰기 때문에 학살되었으며 조선인들은 사악한 종교를 받아들여 그 서양인들을 추종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연락원이 세 번째로 질문하니까 그들은 대답하려 하지 않더랍니다.

그 밖에도 신부님들이 체포된 것은 거짓 신자에 의하여 밀고되었기 때문이라고 연락원이 보고하였습니다. 그 거짓 신자는 신부님들의 얼굴을 익혀두려고 천주교를 받아들이고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편지 요동(백가점)에서, 1842년 12월 9일

2021년 8월 28일(토) 성 아우구스티노 주교 학자 기념일

1842년 12월 9일 요동(백가점)에서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학생의 네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하느님의 자비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은혜로 위험 속에서도 무사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입니다.

모든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메스트르 신부님과 저는 12월 20일을 기하여 조선으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원들과 다른 여러 사람들은 이 계획이 무모하고 극히 위험한 일이라고 단언하면서, 조선과의 연락은 하느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시지 아니하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하며 우리의 계획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만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을 계획하고 있느니만큼 조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만 하다면 무슨 위험인들 마다하겠습니까. 더구나 메스트르 신부님의 출발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신부님은 저에게 더 큰 어려움이 보태지지 않도록 저와 동행하기를 주저하고 계십니다.

스승님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위험이 없지 않고 또한 주위 상황과 저의 무능과 허약함이 이 위험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은혜로 위험 속에서도 무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행에 필요한 물건은 벌써 다 준비되었고, 의복과 신발은 할 수 있는 대로 같이 묶어두었습니다. 조선에 들어갈 때는 더 쉽게 잠입하고 악마의 심부름꾼들 편에서 우리를 덜 주목하도록 거지로 위장할 작정입니다.

이곳은 모든 분들이 다 안녕하시고 저도 허약하나마 그럭저럭 건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만 편지를 끝내면서 스승님께 의지하는 이 작은 아들을 하느님과 성모님 대전에 항상 기억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면 조선에 들어간 후에 저에게 닥칠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신부님께 편지를 올리겠습니다.

지극히 좋으시고 공경하올 신부님, 내내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하올 스승님께, 부당한 아들 조선인 김 안드레아가 인사드립니다.

네 번째 편지 요동(백가점)에서, 1842년 12월 9일

2주간

같은 그리움을 지닌 이들의 도움: 진흙 길에서 만난 손길

“두 요셉이라고 하는 교우촌 회장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다섯 번째 편지)

1842년 12월 21일 요동(백가점)에서 리브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학생의 다섯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순조로운 항해에 대한 감사 미사 봉헌입니다.

이 항해는 순조로워 아무런 역경도 당하지 않았고 다만 북풍이 우리의 항진을 더디게 하였을 뿐입니다. 배 안에서는 네 사람 외에는 모두 신자들이어서 이들은 우리를 잘 대우해 주었고 신부님들께서는 매일 하느님께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범 요한은 일을 주선하도록 요동 교우촌에 파견되었는데, 그는 거기에 머물고 그 대신에 두 요셉이라고 하는 교우촌 회장을 보내왔습니다. 공경하올 신부님들과 우리가 계획한 대로 신부님들을 밤중에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그때의 주변상황이 이를 허용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이 환히 밝은 후에야 외교인들의 작은 배로 짐을 보내고 우리는 두 요셉의 안내로 배에서 내렸습니다. 짐을 운반하기 위하여 두 명의 선원이 우리 배에 올라탔는데, 그들이 미소를 짓고 계시는 신부님들을 보고 서양 사람인 줄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세관에 접근하였을 때 두 요셉은 저에게 방금 물이 빠져서 대단히 질퍽거리는 강변에 신부님과 함께 내리도록 껴속말을 하였습니다. 그곳은 세관에서 마주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신부님들이 세관에서 봉변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토마스(최양업)와 함께 세관으로 직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메스트르 신부님과 브뤼니에르 신부님, 두 명의 선원 그리고 저까지 다섯 명이었는데, 모두 진흙에 발이 빠졌고 길도 아닌 곳을 허둥대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외교인들은 신부님들을 보고 영국인이라고 떠들었습니다.

잠시 길을 걷고 있을 때 세관 쪽에서 30명 가량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고함을 치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경찰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경찰관도 있고 손님의 안내자도 있었습니다. 신부님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걸어가시고 그들은 오랫동안 힐문하여 우리를 괴롭힌 후 자기 자리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백가점이라 불리는 교우촌으로 길을 재촉하였고 두 요셉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다섯 번째 편지 요동(백가점)에서, 1842년 12월 21일

1843년 1월 15일 요동(백가점)에서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학생의 여섯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억장이 무너지는 또 한 번의 순교 소식을 들은 성인의 마음입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저는 계획대로 12월 23일에 출발하여 나흘 후 아무런 장애 없이 변문에 도착하였습니다. 변문에서 멀지 않은 곳을 지나가다가 굉장히 큰 무리를 거느리고 북경으로 들어가는 조선 임금님의 사신 일행을 만났습니다. 하느님의 안배로, 그 일행 중 김 프란치스코라는 조선의 연락원이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는데, 저도 그를 모르고 그 역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제가 그에게 신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대답하고 세례명은 프란치스코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온 중국인 안내자들을 멀리서 따라오게 하고 그를 따라가면서 우선 조선에 계신 신부님들의 안부부터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에 의하면 신부님들은 종교의 이유로 살해되었고 2백여 명의 신자도 처형되었는데 그들 대다수가 지도급 인사였다고 합니다. 저의 형제 최양업 토마스의 부모도 살해되었는데 부친은 곤장으로, 모친은 칼로써 순교의 화관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의 부모 역시 많은 고난을 겪고 부친은 참수되었으며, 모친은 의탁할 곳 없는 비참한 몸으로 신자들 집을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프란치스코가 이야기한 것이 매우 많으나 여기에 다 기록하기에는 너무 장황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편지 요동(백가점)에서, 1843년 1월 15일

2021년 8월 31일(화) 연중 제22주간 화요일

1843년 1월 15일 요동(백가점)에서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학생의 여섯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일시에 모든 목자를 잃은 조선의 불운함에도 희망을 잃지 않음입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앵베르 주교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배신자와 포졸들의 수색으로 수원이라는 곳에 은신하셨는데 유다(김여상)가 지옥의 심부름꾼들을 거느리고 그곳에 당도하자 더는 피신할 수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 포졸들 앞에 나가시어 재판소로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모방, 샤스탕 두 분 신부님도, 자수하지 않으면 천주교인이라는 이름까지 전멸될 것이라는 말을 주교님이 들으시고 편지를 보내어 두 분 신부님을 서울로 불러올려 다 같이 한날

에 순교의 화관을 받으셨다 합니다.

오! 이분들은 참으로 찬란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용맹하게 싸워 승리를 얻은 후 황제의 붉은 옷을 몸에 두르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고 천상 성소에 개선 용사로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은 얼마나 불행한 땅입니까? 그렇게나 여러 해 동안 목자들을 여의고 외로이 지나다가 갖은 노력 끝에 가까스로 맞이한 신부님들을 일시에 모두 잃었으니 조선은 얼마나 불운합니까? 적어도 한 분만이라도 남겨두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모두 다 삼켜버렸으니 조선은 참으로 안타깝고 패심합니다.

여섯 번째 편지 요동(백가점)에서, 1843년 1월 15일

2021년 9월 1일(수) 연중 제22주간 수요일

1843년 1월 15일 요동(백가점)에서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학생의 여섯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하느님의 자비와 성모님의 보호에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요새는 박해가 멎어서 신자들은 조금 안정을 누리게 되었지만, 신부님들이 안 계시어 마치 목자 없는 양 떼처럼 탄식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그 밖의 소식을 더 오래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메스트르 신부님을 인도하기 위하여 변문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그에게 물었더니 외교인들의 의혹과 박해의 위험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충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신부님의 입국을 위해 신자들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 전력을 쏟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조선에 입국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그는 국경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단언하면서 가난한 나무꾼 행세라면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쯤 듣고 그가 가지고 온 편지들을 받고 그와 작별한 후 변문으로 돌아와 하루를 지냈습니다. 이튿날 새벽 한 시쯤 일어나 조선옷으로 갈아입고 중국인 안내자들과 작별한 후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으로 마음이 죄어드는 듯하였습니다. 특히 나무할 칼을 잊어버리고 변문에 놓고 왔기 때문에 더욱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자비에 의지하고, 예로부터 복되신 동정 성모님의 보호에 달아드는 자는 아무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탐문하면서 성문을 향하여 갔습니다.

여섯 번째 편지 요동(백가점)에서, 1843년 1월 15일

1843년 1월 15일 요동(백가점)에서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학생의 여섯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온갖 위험과 추위를 감수하는 용감함입니다.

성문에는 군인이 지키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통행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마침 변문에서 소를 몰고 돌아오는 사람들 틈에 끼여 지나갔습니다. 그곳에 있던 군인이 저에게 통행증을 요구할 차례가 되었을 때 세관원들한테로 갔습니다. 저는 요행히 몸집이 큰 소의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위험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관에서 여행자들에게 한 명씩 세관장 앞으로 나와 성명을 대라고 하였습니다. 날이 어두웠으므로 불을 켜놓고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관장 외에도 다른 세관원 한 사람이 높은 곳에 서서 아무도 달아나지 못하도록 두루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신하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등 뒤에서 세관원이 저를 부르며 통행증도 내지 않고 가느냐고 호령하였습니다. 그가 연거푸 저를 부르기에 통행증을 벌써 내주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뒤쫓아 오는 줄로 믿고 달아나 성 밖 변두리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저를 맞아줄 곳이 한 집도 없었으므로 밤새도록 대략 백리를 걸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너무나 추워서 몸을 녹이려고 조그마한 주막에 들어갔더니 여러 사람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얼굴과 옷을 살펴보고 또 말소리를 들어보고는..... 저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제 머리를 살펴보고 제가 신은 중국 버선을 검사하였습니다..... 저는 정탐꾼이 되돌아가는 것을 보고서..... 그 작은 주막을 멀리 피하면서 우회하여 다시 중국을 향해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는 감히 길에 나서지를 못하고 수목이 울창한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해가 떨어져 어둠이 땅을 내리덮었을 때 걸음을 재촉하여..... 계속 길을 걸어 저녁때가 지나 변문에 도착했고 거기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물건을 마련하고 5일 만에 백가점에 도착하여 공경하올 메스트르 신부님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전에 정성껏 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공경하올 신부님,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하올 스승님께, 순명하는 아들 김해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여섯 번째 편지 요동(백가점)에서, 1843년 1월 15일

1843년 2월 16일 요동(백가점)에서 리브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학생의 일곱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하느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입니다.

12월 23일에 메스트르 신부님이 안배하신 대로 4일이 걸려 아무런 장애 없이 변문에 도착하였습니다. 조선에서 온 연락원 김 프란치스코는 벌써부터 변문에 도착하여 여러 날을 머무르면서 우리와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인 안내자들이 오지 않을 줄로 알고 외교인 친구들의 호의와 후원으로 그들을 수행하여 중국에 들어갈 허가를 얻어, 북경으로 들어가는 일행 명단에 올라 조선 임금님이 보내는 사신 일행과 함께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안배로 변문에서 멀지 않은 길거리에서 사신 일행과 함께 가는 그를 만났으나 저도 그를 모르고 그 역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8년 전에 단 한 번 서로 만나본 일이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에게 교우냐고 물었더니, 그가 자기는 교우이며 본명은 김 프란치스코라고 대답하였으므로 저도 그에게 비슷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 북경행을 중지하고 변문으로 되돌아가서 선교사 신부님을 담당 선교사인 조선으로 인도하여 드릴 방도를 의논하자고 청하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 외교인 동료들이 수상하게 여길 것이고, 따라서 박해의 위험이 없지 않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장차 다른 신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어쩌서 여러 해 동안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첫해(1839)에는 배반자들의 음모가 무서워서 감히 생각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 해에는 연락원을 보냈더니 도중에 객사하고, 두 번째 보낸 자는 변문까지 가기는 했으나 중국인 안내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대로 되돌아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프란치스코가 변문에 왔지만 중국인 안내자를 만나지 못해서 자기가 북경까지 들어갈 작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사정이 허락지 않아 그 밖의 소식을 더 오래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편지 요동(백가점)에서, 1843년 2월 16일

1843년 2월 16일 요동(백가점)에서 리브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학생의 일곱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온갖 위험을 감수하시는 김대건 신부님의 순명입니다

저는 포졸들의 손아귀를 피하기가 지극히 어려웠고, 만일 잡히는 경우에는 제 몸에 지닌 돈만 보더라도 도둑의 혐의를 받아 사형을 받게 될 염려가 있었습니다. 도둑은 국법에 의하여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가 뜬 다음에는 감히 길에 나서지를 못하고 수목이 울창한 산속에 숨어 있다가 해가 떨어져 어둠이 땅을 내리덮었을 때 걸음을 재촉하여 새벽 2시쯤에 의주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서 바다와 반대쪽에 있는 읍 원편으로 방향을 정하여 길도 없는 험악한 곳을 헤매었습니다. 이런 곳에도 사방에 지붕이 보이기에 저는 국경 수비대로 여겼습니다.

제가 압록강에 도착하였을 때는 벌써 해가 떠올라 사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첫째 강과 둘째 강을 건넌 뒤에 황막한 들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걸어가는 도중에 중국 의복으로 갈아입느라고 나머지 한나절을 다 소비하였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약 백리 길을 걷고 나니 해가 떠올랐습니다. 계속 길을 걸어 저녁때가 지나 변문에 도착하여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느님과 동정 성모님의 보호하심으로 몇 가지 물건을 마련하고 5일 만에 백가점에 도착하여 공경하올 메스트르 신부님에게로 되돌아왔는데 이날이 1월 6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3월에 프란치스코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평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사정은 신부님들의 편지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전에 정성껏 저를 기억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공경하올 스승님께, 순명하는 아들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일곱 번째 편지 요동(백가점)에서, 1843년 2월 16일

3주간

조선의 신자들을 향한 그리움: 복음의 씨앗을 품어 조선으로

“조선에 있는 신자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으나 목자들이 아니 계셔서 암흑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편지)

1844년 5월 17일 요동(백가점)에서 리브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학생의 여덟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온갖 위험을 감수하시는 김대건 신부님의 사명감입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

조선에 있는 신자들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으나 목자들이 아니 계셔서 암흑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만일 하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어떤 신자 가족을 의주(義州)로 이사시켜서 조선에 입국할 사람이 조금 더 쉽게 드나들 수 있게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심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고 날마다 입국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극히 공경하올 페레올 고 주교님과 함께 몽고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경하올 주교님의 사명을 받들어 북방을 통한 조선 입국의 길을 탐색하고자 약 두 달 동안 큰 장애 없이 모든 여정을 답사하고 돌아왔습니다.

만주어로 훈춘(琿春)이라고 불리는 홍시개 촌락은 우리가 체류하고 있는 소팔가자에서 2천 리나 떨어져 있습니다. 훈춘과 영고탑 사이에 5백 리나 뻗어 있는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합니다. 이 사막에는 여관이 전혀 없는데 유목민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체류하면서 나그네들을 자기 움막에 유숙하게 합니다.

훈춘에서부터 조선 사람들의 도시와 집을 볼 수 있는데, 교역이 열리는 기간 외에는 일체의 교섭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훈춘에서 8일을 묵고 안내자와 함께 조선인 도시(함경도 경원)로 가서 거기에서 조선인 연락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은 선교사 신부님의 도착을 기다리며 한 달 이상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존경하올 스승님, 만일 가능하시다면 성경과 영신수련을 위한 매일 묵상 책과 보목(寶木: 진품 십자가 나무조각), 상본, 특히 성모님의 무염시태 상본과 십자가상과 묵주 그리고 깃털 펜을 깎는 칼도 함께 보내주시기를 청합니다.

여덟 번째 편지 소팔가자에서, 1844년 5월 17일

1844년 12월 15일 소팔가자에서 페레올 주교님께 보낸 김대건 부제의 아홉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조선 입국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김대건 신부님의 개척정신입니다.

페레올 주교님께,

우리는 널빤지로 만든 썰매를 타고 눈이 쌓인 길을 빨리 달려 몇 시간 만에 장춘(長春)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튿날 그곳을 떠나 둘째 날 우리는 장책(長柵)을 지나서 만주로 들어갔습니다. 넓디넓은 들판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어서 어디를 보나 눈부신 단조로운 흰빛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들판을 지나 처음 도착한 도시가 길림(吉林)이었는데,..... 길림은 송화강 동쪽 강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송화강은 2월의 추위로 아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길림은 남쪽의 도시처럼 거리가 매우 붐비고 거래가 아주 활발하였습니다..... 길림에서 별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이 산림은 멀리 지평선에 그 시커먼 민둥민둥한 큰 봉우리가 눈이 부신 흰 눈 위로 솟아 있습니다. 이 산림은 중국과 조선 사이에 넓은 장벽처럼 가로질러 있어서 두 나라 사이의 모든 교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장백산맥이) 조선 민족이 반도로 물러간 이래 줄곧 있어 온 그 통한의 분열을 유지 시키는 것같이 보였습니다.

이 산맥은 동서 길이가 6백 리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남북의 길이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산맥을 곧장 가로질러 조선을 향하여 직선으로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여행길을 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산맥은 통과할 수 없는 성벽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멀리 돌아 영고탑 쪽으로 가서 개척된 길을 찾아야만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편지 소팔가자에서, 1844년 12월 15일

2021년 9월 7일(화) 연중 제23주간 화요일

1844년 12월 15일 소팔가자에서 페레올 주교님께 보낸 김대건 부제의 아홉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영고탑으로 가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였습니다. 마침 하느님의 섭리가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도시가 고향이라는 그 지방 상인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라 얼마 동안 송화강 얼음 위로 그 강의 상류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땅이 울퉁불퉁하고 산도 험악하며 수목도 울창하고 길도 없어서 여행자들은 강을 타고 다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서 우리는 송화강을 떠나 좀 더 북쪽에 가서 본류와 합류하는 그 지류 중 하나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이 지류를 목단강이라고 부르고 서양지도에는 후르시아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달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강가에는 간간이 주막이 있었는데 하루는 신자의 주막을 만나게 되어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였습니다. 그 주막 주인이 우리를 형제처럼 후대했고 숙박비로 아무것도 받지 않을뿐더러 길 가다가 먹을 음식까지도 억지로 거저 주었습니다. 이것은 인정해야 할 중국인 교우들의 미덕입니다. 그들은 외국인과 그들의 형제들에게 지극히 너그럽게 대접해 보내는 것이 관습입니다.

아홉 번째 편지 소팔가자에서, 1844년 12월 15일

2021년 9월 8일(수)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

1844년 12월 15일 소팔가자에서 페레올 주교님께 보낸 김대건 부제의 아홉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신앙과 선행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그 주막을 떠나 덜 험한 길을 골라 가느라고 어느 때는 언강을 건너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 오른쪽이나 왼쪽 기슭을 따라가기도 하였습니다. 좌우로 거대한 수목이 울창한 높은 산이 솟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호랑이, 표범, 곰, 늑대와 그 밖의 사나운 짐승들이 살고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습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적이 드문 무서운 산간벽지를 혼자 지난다는 것은 미련한 짓이어서 얼마 못 가서 맹수의 밥이 되는 불행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번 겨울 동안만 해도 80명 이상의 행인과 백 마리 이상의 소와 말이 맹수한테 잡아 먹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인들은 무장을 단단히 하고 무리를 지어 다녀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적을 압도할 만한 강대한 군대를 편성하여 행군하였습니다. 도중에 때때로 맹수들이 굴에서 나타났지만 우리 일행의 당당한 위용을 보고는 감히 덤벼들지 못하였습니다.

짐승들이 사람을 습격하니 사람들 역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맹수를 섬멸할 작전을 펠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황제가 많은 사냥꾼을 이 산림지대로 보내는데, 지난해에는 그 수가 5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용감한 포수 중에는 언제나 그 용맹 때문에 생명을 대가로 치르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도 포수들이 동료 한 사람의 시체를 천리 밖에 있는 고향 땅, 조상의 묘지가 있는 데로 옮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싸움터에서 명예롭게 쓰러진 것입니다. 짐승을 잡은 보람이 있어 관 위에는 사슴뿔과 호랑이 가죽 등이 전리품으로 자랑스럽게 실려 있었습니다. 장례 행렬의 인도자는 한길에 종이로 만든 돈을 이따금씩 뿌리고 가는데, 죽은 자의 영혼이 그것을 주워 저 세상에서 쓴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신앙과 선행만이 저 세상에서 통하는 진짜 돈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편지 소팔가자에서, 1844년 12월 15일

2021년 9월 9일(목) 연중 제23주간 목요일

1844년 12월 15일 소팔가자에서 페레올 주교님께 보낸 김대건 부제의 아홉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라는 진리의 깨달음입니다.

훈춘은 바다에서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조선과 만주를 가르는 두만강 어귀에 있습니다. 그곳은 백 가구 가량의 달단인들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촌락입니다. 조선인과 중국인이 접촉할 만한 지점은 남쪽에 있는 봉황성(鳳凰城) 변문 외에는 오직 이 훈춘뿐입니다..... 많은 중국인이 아주 먼 데서부터 이리로 교역을 하러 옵니다. 그들은 조선 사람들에게 개. 고양이. 담뱃대. 사슴뿔(녹용). 구리. 말. 노새. 나귀들을 주고, 그 대신에 바구니. 가재도구. 쌀. 밀. 돼지. 소. 종이. 돛자리. 가죽 제품 그리고 빠르기로 이름난 조랑말들을 받습니다. 이러한 거래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는 2년에 한 번씩, 그나마도 한나절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상품 교환은 훈춘에서 40리 떨어진 조선의 제일 가까운 도시인 경원(慶源)에서 행하여 집니다..... 이렇게 해마다 교역하는 몇 시간 동안만이 중국인과 조선인이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다른 때는 어느 쪽에서든지 국경을 넘는 사람은 잡혀서 종이 되거나 가차 없이 살해됩니다.

이 두 민족은 서로 대단히 미워합니다. 더구나 근년에 중국인들이 조선에 들어와 어린이들과 여자들을 납치해 간 후로는 훨씬 더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선 국경에 도착하였을 때는 시장이 서기까지 8일이나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였습니다. 한 시라도 빨리 조선의 신자들을 약속한 표지로 알아보고 그들과 대면하게 되기를 마음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아! 이 백성들은 아직도 외국인을 보면 원수로 여기고 무서워하면서 국경 밖으로 내쫓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야만 상태에 있구나.’ 하고 탄식하였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다만 며칠을 지내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진리를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아홉 번째 편지 소팔가자에서, 1844년 12월 15일

1844년 12월 15일 소팔가자에서 페레올 주교님께 보낸 김대건 부제의 아홉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긴 기다림의 인내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용납되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중국인으로 알기 때문이었고, 잠깐 동안이나마 조국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외국인의 자격으로서였습니다. 아! 인류 대가족의 공동의 아버지께서 천주 성자 예수님이 전 인류에게 전하여 주려 오신 무한한 사랑 안에 모든 자녀를 포용할 날이 언제쯤 오겠습니까!..... 저는 일행과 함께 해가 뜨자마자 급히 서둘러 시장으로 갔습니다. 읍내 어귀에는 많은 사람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에 흰 수건을 들고 허리띠에는 붉은색 조그만 차주머니를 차고 군중 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이것은 조선 연락원들이 우리를 알아보도록 약속한 표였고 그들이 그 표를 보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읍내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여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시간이 헛되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만날 약속을 어긴 것일까?” 하는 걱정스러운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말에게 물을 먹이려고 읍내에서 3백 보쯤 떨어진 냇가로 갔는데, 낯선 사람이 우리의 표를 보고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중국말로 말을 걸었더니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선말로 “당신 이름이 무어요?” 하고 물었더니 “나는 한서방이요.” 하고 대답하여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요?” 하자 “그렇소.”하고 말하여 저는 일단 성공했다고 한숨 놓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자기 동료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 일행은 4명이었는데 거기서 우리를 기다린 지가 한 달이 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조선인들과 중국인들이 둘러 있어서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련한 신자들은 슬픔으로 낙담하는 기색이 얼굴에 가득하였습니다. 우리의 대화에서 풍기는 묘한 분위기 때문에 외교인들의 호기심을 끌었습니다.

우리는 외교인들이 우리 이야기에 주의를 덜 기울이는 틈을 타서 재빨리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몇 마디하고는 다시 가축 흥정을 하는 척하였습니다. “이것 얼마 받겠소?”, “80냥이오.”, “그건 너무 비싸오. 자, 50냥 줄 터이니 당신 가축을 팔고 가시오.”, “안 될 말씀이오. 조금이라도 덜 주셨다면 안 팔겠소.” 이렇게 하여 우리는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아홉 번째 편지 소팔가자에서, 1844년 12월 15일

1844년 12월 15일 소팔가자에서 페레올 주교님께 보낸 김대건 부제의 아홉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하느님의 인자하심에 의탁하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조선 신자들로부터 박해가 멎은 다음 조선 교회는 비교적 평온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해의 폭풍우가 덜 몰아친다고 생각하는 남쪽 지방으로 피신한 신자들도 많고, 천주교에 입교한 가족들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신자들이 서양 선교사를 오랫동안 그들의 집에 모셔두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하느님의 인자하심에 의지하여 선교사를 영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을 조선으로 모셔 들이는 데는 훈춘보다 변문이 덜 위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훈춘을 경유하여 조선으로 들어오면 국경을 넘어오는 위험 외에도 조선(함경도) 전체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끝마치고 우리는 이별하려고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그들이 흐느껴 울어서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읍내로 들어와 군중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교회를 수호하는 천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조선 순교자들의 기도 에 의탁하면서 두만강을 건너 달단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얼음 위를 미끄럼 타며 왔던 강이 한창 녹고 있었습니다. 높은 산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울로 인하여 물이 불은 강에는 잡동사니와 묵은 나무등 결과 굉장히 큰 얼음덩어리들이 마구 뒤섞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이 마차를 끌고 자꾸만 모여들어 강가가 혼잡하였습니다. 군중이 외치는 소리와 맹수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강물이 흘러내리는 요란한 소리가 한데 뒤섞여 산골짜기를 괴상하고 무시무시한 광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무도 이 위험한 강물 가운데로 감히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해마다 이 강을 건너다가 얼음 밑에 깔려 죽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저는 건너갈 만한 곳을 찾아서 강을 건넜습니다.

저의 동행은 좀 더 신중해서 물길을 잘 아는 안내인을 고용하여 멀리 돌아서 무사히 건넜습니다. 우리는 말 한 필을 잃어버린 손해밖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주교님께, 지극히 순종하고 부당한 아들 김해 김 조선인 부제가 절합니다.

아홉 번째 편지 소팔가자에서, 1844년 12월 15일

4주간

오직 하느님의 도우심만을 빌며 : 박해 속에서도 자라난 하느님께 대한 그리움

“우리는 인간의 구원을 바랄 수 없어 오로지 하느님의 도우심만 믿고 있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편지)

1845년 3월 27일 서울에서 리브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부의 열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기나긴 기다림 속에서 찾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공경하올 리브아 신부님께

저는 페레올 주교님의 강복을 받고 한밤중에 신자들을 따라나서서 해 질 무렵 의주 읍내가 바라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의주에서 이십 리가량 떨어진 산골짜기를 찾아들어 울창한 숲속 어둡침침한 나뭇가지 밑에 몸을 숨겼습니다. 사방에 눈이 쌓여 산촌이 모두 하얗고 싸늘한데 밤이 되기를 기다리자니 어찌나 지루한지 목주기도를 수없이 거듭하였습니다. 해가 지고 천지가 어둠에 잠겼을 때 하느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것을 떠나 읍내를 향해 가는데 발소리마저 내지 않으려고 신발도 벗고 걸었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곳에 겨우 이르러 보니 신자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 두 번이나 읍내에 들어가 사방으로 찾아보았으나 헛일이었습니다..... 저는 추위와 굶주림, 피로와 근심에 짓눌려 기진맥진한 채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거름더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오로지 하느님의 도우심만을 고대하면서 먼동이 틀 때까지 녹초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를 찾아다니던 신자들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먼저 왔는데 저를 만나지 못하자 되돌아갔다가 두 번째 온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 기다렸는데 제가 오지 않으니까 모두 걱정을 하면서 오 리나 나가서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결국 찾지 못하고 근심으로 밤을 지새운 뒤 절망하고 낙심천만하여 돌아갈까 하던 참에 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에 넘쳐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열 번째 편지 서울에서, 1845년 3월 27일

1845년 3월 27일 서울에서 리브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부의 열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약함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하느님의 도우심과 자비하심입니다.

제가 조선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저의 어머니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중히 당부하였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우리가 마카오로 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귀국하는 대로 잡아 죽이도록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방안에 갇혀 며칠을 지내니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괴롭더니 마침내 병에 걸렸습니다. 마치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듯이 가슴과 배와 허리가 참을 수 없을 만큼 지독히 아팠습니다. 때때로 심하게 아프다가 좀 낫기도 하고, 이렇게 한 보름 넘게 앓았습니다. 저는 병을 고치기 위하여 신자 의원과 외교인 의원을 청하여 그들이 주는 여러 가지 약을 먹었습니다.

지금은 병이 다 나았으나 몸이 허약해져 글씨를 쓸 수도 없고 다른 것을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한 이십 일 전부터는 눈병까지 생겨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련한 처지의 허약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도우심과 자비에 의지하여 페레올 주교님과 선교사 신부님들을 영접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신 : 조선에서는 많은 아기들이 반점으로 얼굴이 흉해지는 병(천연두)으로 죽어가는데, 그 병을 퇴치할 수 있는 처방을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기를 스승님께 청합니다.

열 번째 편지 서울에서, 1845년 3월 27일

2021년 9월 14일(화) 성 십자가 현양 축일

1845년 4월 6일 서울에서 리브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부의 열한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굳건한 증언과 순교 정신입니다.

공경하올 리브아 신부님께

(기해박해 상황에서) 신부님들은 주교님의 명령에 순명하였고 또 탈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피할 수는 있었겠지요. 그러나 당신들이 구하려고 온 양들을 위하여 환난을 무릅쓰고 죽음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판단할 때 그것은 과오가 아니라 덕행

이었습니다.

신부님들은 죽음의 길로 떠날 준비를 하였습니다. 신자들이 몰려와 목자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을 고아로 남겨놓고 죽음의 길로 가지 말라고 슬픔에 젖어 간청하였습니다. 신부님들은 어머니와 같은 애정으로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들을 위로하였고, 자기들은 웃어른의 명령으로 죽음의 길로 간다고 타일렸습니다. 신자들은 신부님들을 만류할 수 없음을 알고 자기들도 따라갈 수 있게 해 달라고 눈물로 애원하였으나 신부님들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신부님들은 미사성제를 봉헌한 다음 길을 떠나기 전 양들에게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였습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목자들을 뵈 수 없게 되었음에 통곡하였습니다.

서울에 끌려온 신부님들은 존경하올 주교님을 뵈고 나서 모두 의금부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저버리라고 경고를 받았지만 더욱 큰 소리로 하느님을 증언하였고, 신자들을 신고하라는 강요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형벌을 극복하고 사형을 선고받아 1839년 9월 21일 거룩한 피를 흘려 순교함으로써 하늘나라로 개선하였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열한 번째 편지 서울에서, 1845년 4월 6일

2021년 9월 15일(수)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1845년 4월 6일 서울에서 리브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부의 열한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끊임없는 참회와 열정을 통한 하느님께로의 회귀입니다.

신부님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신자들은 2년 동안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마지막 박해가 4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 신자들은 비참과 가난에 쪼들려 이루 형언할 수 없이 비참하게 되었었을 뿐 아니라 박해와 무수한 재앙을 당하였습니다.

4년 전부터 박해가 멈추었지만 아직도 평온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은 신자들을 죽이려는 적극적 박해는 없지만 신자들은 예전보다도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의 집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만 하면 포졸들이 즉시 그 집을 점거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자들은 모진 박해를 당하고 난 후라 맥이 빠지고 열성이 식어 대다수가 냉담자들이 되었는데 예전과 같은 열성적 상태로 돌아올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전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자들은 점차 열성이 오르고 그 수도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교자들이 참회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교인들에게 설교한 사람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오류를 버리고 가톨릭 종교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되려는 외교인들이 많지만 신자들은 박해가 무서워서 감히 자진하여 그들에게 종교를 전하려는 엄두를 감히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의 종교를 찬양하고 그 종교가 참된 종교임을 고백하면서 박해가 없었더라면 자신들도 신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열한 번째 편지 서울에서, 1845년 4월 6일

2021년 9월 16일(목) 성 고르넬리오 교황과 성 치프리아노 주교 순교자 기념일

1845년 4월 6일 서울에서 리브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부의 열한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겸손과 너그러운 마음, 정직한 삶입니다.

거의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의 종교를 찬양하고 그 종교가 참된 종교임을 고백하면서 박해가 없었더라면 자신들도 신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로지 박해가 무서워서 감히 귀의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포졸들은 서로 다음과 같이 수군거립니다.

“만일 박해가 없었더라면 누구라도 송아지 새끼가 아닌 이상 천주교 신자가 되기를 마다할 사람은 없을 거야.”

“천주교는 참으로 훌륭한 종교이기는 한데 우리가 만일 신자가 되면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군. 온갖 모욕을 참아내고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여야 한다네. 자기 자신과 사물을 경시하며 모욕을 받더라도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네.”

“신자가 되면 세속적인 것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한다니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살겠나? 이로울 건 아무것도 없고 비참할 뿐이겠지”

일반적으로 외교인들은 천주교 신자들이 정직하다고 알고 있고 신자들의 비참을 동정합니다. 그리고 박해 때는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외교인들은 어떤 좋은 것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하면 “필시 천주교 신자의 소행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외교인들끼리도 어떤 것을 올바르게 행하면 “자네도 천주교 신자인가?” “그렇게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나?”라고 농담을 합니다.

열한 번째 편지 서울에서, 1845년 4월 6일

1845년 4월 7일 서울에서 리브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부의 열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기도입니다.

신부님들이 순교한 다음에도 신자들은 2년 동안 박해를 더 받았습니다. 4년 전부터는 안온한 상태에 있는데 신자들의 기운을 회복시키고 외교인들을 입교시키며 모두를 완성시켜 줄 선교사 신부님들을 하루빨리 조선에 모시기를 모두가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눈병이 낫지 않았고 그동안 증병에 걸려 몹시 앓았으나, 요새는 힘없는 머리를 겨우 쳐들고 있을 정도로 원기가 조금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태산같이 많으나 몸은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 마음은 설치지만 활동은 미미합니다.

현재를 위해서나 장래를 위해서나 이곳 형편을 위해서나 북방의 길을 열어놓을 일이나 강남으로 출발할 일을 생각하면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이 산더미처럼 많지만 병으로 허약해진 몸이 일을 행하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병중에 무능해진 저는 다만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비록 제가 병중에 있으나 가능한 대로 강남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출발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금년에 메스트르 신부님과 토마스(최양업 부제)를 영접하기 위하여 북방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경하올 스승님께, 가장 순명하고 무익한 김해 김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열두 번째 편지 서울에서, 1845년 4월 7일

1845년 7월 23일 서울에서 리브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부의 열여섯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우리의 기도를 전구해 주시는 성모님에 대한 열심한 공경과 기도입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리브와 신부님께

저는 모든 준비를 끝낸 후 11명의 신자와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탄 배는 바다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작은 배였는데 폭풍우가 점점 심해지자 파도 때문에 몹시 까불리고 무섭게 내팽개쳐져서 거의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 뒤편에 끌고 오던 종선 줄을 끊어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위험이 여전히 계속되므로 두 개의 돛대를 베어버리고 마침내 식량까지 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가 조금 가벼워지기는 했지만 폭풍이 부는 대로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쓸려 요동을 쳤습니다. 신자들은 3일 동안 먹지 못하여 극도로 탈진하였고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보고 절망하여 “이제는 다 끝났다.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겠다.” 하고 서글피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 다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성모님의 기적 상분을 내보이면서 “겁내지 말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모님이 여기 계시다.”는 말로 가능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구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우리의 희망을 오직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의탁하고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문득 잠에서 깨어나 보니 비도 그치고 풍파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열여섯 번째 편지 서울에서, 1845년 7월 23일

2021년 9월 19일(일) 연중 제25주일

5주
간

5주간

하느님 나라를 향한 그리움 :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는 자유

“머지않아 천당에서, 영원하신 성부 대전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1846년 8월 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옥중에서 조선 신자들에게 쓰신 스물한 번째 편지인 마지막 회유문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여러 고난과 유혹들 사이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기입니다.

우리 사랑하온 제형들아, 알지어다. 우리 주 예수 세상에 내려 친히 무수한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운 가운데로조차 성교회를 세우시고 고난 중에 자라나게 하신지라.

그러나 세상 풍속이 아무리 치고 싸우나 능히 이기지 못할지니 예수승천 후 종도(宗徒)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성교 두루 무수 간난(艱難) 중에 자라니, 이제 우리 조선이 성교 들어온 지 5, 60년에 여러 번 군난(窘難)으로 교우들이 이제까지 이르고 또 오늘날 군난이 치성(熾盛)하여 여러 교우와 나까지 잡히고 아울러 너희들까지 환난(患難)을 당하니, 우리 한 몸이 되어 애통지심(哀痛之心)이 없으며 육정(肉情)에 차마 이별하기 어려움이 없으랴.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되 작은 털끝이라도 주 돌아보신다 하고 모르심이 없어 돌보신다 하셨으니, 어찌 이렇다 할 군난이 주명(主命) 아니면 주상주벌(主賞主罰) 아니라.

주의 성의(聖意)를 따라오며 온갖 마음으로 천주 예수의 대장 편을 들어 이미 행복받은 세속 마귀를 칠지어다.

이런 황망한 시절을 당하여 마음을 늦추지 말고 도리어 힘을 다하고 역량을 더하여 마치 용맹한 군사가 병기를 갖추고 전장에 있음같이 하여 싸워 이길지어다.

스물한 번째 편지 옥중에서, 1846년 8월 말

2021년 9월 20일(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일

1846년 8월 26일 옥중에서 페레올 주교님께 보낸 김대건 신부의 스무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대한 굳센 믿음과 공경, 의탁입니다.

공경하올 페레올 주교님께

우리는 주교님의 지시대로 실행한 후 그곳을 떠나 순위도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여행은 그때까지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기에 끝까지 성공하리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저의 복사 배난시오가 이런 경우 취할 태도를 일러준 바가 있어 저는 관장에게 우리 배를 빌려주게 되면 제 체면이 깎일 것이고 따라서 이 지역에서 일을 보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포졸들은 제게 욕을 퍼붓고는 키를 맡은 으뜸 사공을 잡아가더니 저녁때 다시 와서 두 번째 사공을 관가로 끌고 갔습니다. 관장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퍼부은 결과 저의 신분에 대하여 중대한 의혹을 일으키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해변에 이르자 포졸들이 제 옷을 벗기고 마구 때리며 온갖 능욕을 퍼부으면서 관가로 끌고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장이 저에게 “당신이 천주교인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소. 나는 천주교인이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가 “어찌하여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천주교를 믿는 거요? 그 교를 버리시오.”라고 심문하기에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이므로 믿는 거요. 우리 종교는 하느님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오. 나는 배교하기를 거부하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관장은 저를 고문하게 하면서 “배교하지 않으면 곤장으로 때려죽이겠소.”라고 말하였습니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나는 결코 우리 하느님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요. 우리 종교의 진리를 듣고 싶으면 들어보시오. 내가 공경하는 하느님은 하늘과 땅과 사람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선인들은 상 주시고 악인들은 벌하시는 분이요. 그러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느님을 공경하여야 마땅하오. 관장 나으리,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이런 형벌을 당하게 해주니 감사하오. 그리고 우리 하느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벼슬에 오르게 하여 이 은혜를

값아주시기를 바라오.”라고 말했습니다.

스무 번째 편지 감옥에서, 1846년 8월 26일

2021년 9월 21일(화) 한가위

1845년 7월 23일 상해에서 페레올 주교님께 보낸 김대건 신부의 열일곱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회심과 회개입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페레올 주교님께

공경하올 주교님의 분부를 받고 조선에 파견된 후 저는 하느님의 은혜로 무사히 입국하여 서울에서 신자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병에 걸려 여러 차례 심하게 앓았습니다. 신자들은 지금 박해를 받지 않고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마는 목자가 없어 탄식하고 있습니다. 신자 수가 나날이 증가되고 열심도 커지며 배교한 사람들도 다시 회개하여 바른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외교인들도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류를 버리고 참 하느님께로 회두하는 사람이 많으며, 외교인 사이에 천주교를 가장 좋게 여기는 여론이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신자 수는 최소한 만 명으로 추산되고 순교자 수는 처음부터 8백 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오늘날 실제로 적극적 박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으나 날마다 죽을 위험에 처하여 있으며 참으로 가난하고 참혹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열일곱 번째 편지 상해에서, 1845년 7월 23일

2021년 9월 22일(수) 연중 제 25주간 수요일

1845년 11월 20일 서울에서 리브아 신부님께 보낸 김대건 신부의 열여덟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리브아 신부님,

우리는 9월경에 강남을 출발하였습니다. 바다에서 여러 차례 폭풍우로 시달렸고 바람은 더욱 거세어져 키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되지 않도록 돛대를 베어버리고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거센 역풍으로 우리는 제주도까지 떠내려갔습니다. 그 후 여러 날 걸려 강경이라는 항구에 도착하였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아무런 재앙 없이 신자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공경하올 폐례올 주교님과 공경하올 다블뤼 신부님은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조선말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메스트르 신부님과 토마스 부제를 영입할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박해한 왕과 대신들은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신자들은 현재로서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으나 또 다른 박해가 일어난다는 소문이 신자들을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음력 7월경에 영국 함선 한 척이 제주도에 왔습니다. 그때 대신들과 백성들은 살해된 신부님들의 피를 보복하려고 왔다고 생각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에 서양 함선이 자주 드나드는 것은 신자들에 대한 외교인의 증오심을 자극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서양 사람들이 접근해 오는 것은 신자들이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내통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외교인은 우리가 강남에 갔다 온 것을 의심하고 탐사하면서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편지 서울에서, 1845년 11월 20일

2021년 9월 23일(목)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사제 기념일

1846년 7월 30일 옥중에서 스승 신부님들께 보낸 김대건 신부의 열아홉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두려움의 극복과 공경입니다.

예수 마리아 요셉

지극히 공경하올 베르뇌 신부님, 메스트르 신부님, 리부아 신부님,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지극히 공경하올 여러 신부님께 한 장의 편지를 드리게 되니 공경심이 모자라는 듯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처해 있는 곳과 환경뿐 아니라 공경하올 신부님들께 대한 저의 정성과 애정이 이렇게라도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음력 3월경에 지극히 고귀하시고 공경하올 폐례올 주교님이 분부하신 대로 저는 배를 타고 백령도에 갔습니다. 거기에 와 있는 중국 어선들을 통하여 여러 신부님께 보내는 라틴어 편지와 한문 편지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 편지는 모두 조선 포졸들에게 발각되어 압수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4명의 신자와 함께 체포되어 다 같이 결박당하여 수도 서울로 압송되었습니다. 서울로 오는 도중에 여러 읍내에서 밤을 지낼 때마다 우리를 구경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외국인처럼 체포되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보니 신자들이 잡혀왔습니다. 머지않아 현 가솔로도, 교회를 위하여 활동하던 5명의 여교우와 함께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집에 있던 돈과 제의 등의 물건도 압수되었습니다. 지금은 포졸들이 신자들을 잡으려고 사방에 파견되어 있다는데 누구보다도 공경하올 주교님의 복사인 이 토마스를 체포하려 한답니다. 주교님과 신부님도 체포될까 염려됩니다.

저는 편지 때문에 무수히 많은 심문을 당하였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이번에도 큰 박해가 일어날 듯합니다..... 이만 붓을 놓으며 공경하올 여러 신부님께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립니다. 머지않아 천당에서 영원하신 성부 대전에서 서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편지 감옥에서, 1846년 7월 30일

2021년 9월 24일(금) 연중 제 25주간 금요일

1846년 7월 30일 옥중에서 스승 신부님들께 보낸 김대건 신부의 열아홉 번째 편지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용기와 관대한 마음,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는 함께 갇혀 있는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예비신자 두 사람에게 세례성사를 주었습니다. 제가 있는 감옥에는 10명이 함께 갇혀 있고 다른 감옥에 갇혀 있는 신자는 7, 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판관에게 프랑스의 강대함과 관대한 관습에 대하여 여러 번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믿는 것처럼 보였으나 프랑스 신부님들을 죽인 후에도 프랑스로부터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프랑스인 때문에 저를 죽이기를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위에 언급한 이유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하느님의 안배가 없는 한 조선 신자들이 선교사 신부님들을 영입하거나 보호할 대책과 방법이 없습니다.

이만 붓을 놓으며 공경하올 여러 신부님께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형제 토마스여, 잘 있게. 이후 천당에서 다시 만나세. 그리고 내 어머니 우르술라를 특별히 돌보아 주기를 그대에게 부탁하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한 저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로 하여금 모든 혹독한 형벌을 끝까지 용감하게 이겨내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환난을 굽어보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살피신다면 주여, 누가 감당할 수 있으리 이까.

지극히 공경하올 신부님들, 안녕히 계십시오.

무익하고 부당한 중,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조선 선교지의 교황 파견 선교사 안드레아가 올립니다.

열아홉 번째 편지 감옥에서, 1846년 7월 30일

1846년 8월 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옥중에서 조선 신자들에게 쓰신 스물한 번째 편지인 마지막 회유문입니다. 이 서한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영성은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부단한 마음가짐과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입니다.

부디 서로 우애(友愛)를 잊지 말고 돕고 아울러 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환난을 견기까지 기다리라. 혹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부디 삼가고 극진히 조심하여 위주광영(爲主光榮)하고 조심을 배로 더하고 더하여라.

여기 있는 20인은 아직 주은으로 잘 지내니 설혹 죽은 후라도 너희가 그들의 가족을 부디 잊지 말라.

할 말이 무궁한들 어찌 지필(紙筆)로 다하리. 그친다.

우리는 미구에 전장에 나아갈 터이니 부디 착실히 닦아 천국에 가 만나자. 마음으로 사랑하여 잊지 못하는 신자들에게 너의 이런 난시(難時)를 당하여 부디 마음을 허실히 먹지 말고 주야로 주우를 빌어 삼구(三仇)를 대적하고 군난을 참아 받아 위주광영하고 여등(汝等)의 영원 대사를 경영하라.

이런 군난 때는 주의 시험을 받아 세속과 마귀를 쳐 덕공(德功)을 크게 세울 때니 부디 환난에 놀려 항복하는 마음으로 사주구령사(事主救靈事)에 물러나지 말고 오히려 지나간 성인 성녀의 자취를 만만 수치(修治)하여 성교회 영광을 더하고 천주의 착실한 군사와 의자 됨을 증거하고 비록 너희 몸은 여럿이나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의 긍련(矜憐)하실 때를 기다리라.

할 말이 무수하되 거처가 타당치 못하여 못한다.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 만나 영원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입으로 너희 입에 대어 사랑을 친구(親口) 하노라.

부감목 김 안드레아.

스물한 번째 편지 옥중에서, 1846년 8월 말



김대건 신부님 생가(솔뫼)